

## 2023년 제21차 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주연) 주최 제21차 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2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덕, 권철환, 권기호 고문, 권주연 협의회장, 권오윤 협의회부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갑현 안동권씨1100년사 편집위원장, 15개 파종회장 및 부회장, 임원, 사무국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맹배, 상 읍례,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주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를 비롯하여 15개 파의 족친들이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특히 대종회장과 각 파종회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파종회장과 부회장, 임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하다”며 “저가 대종회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공약 가운데 현재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능동재사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여 빨리 마치겠으며 한수 받은 나무는 능동재사 진입로에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대종회 임원비는 50%가량

들어오는데 종보 대금은 20%밖에 들어오지 않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파종회장들이 적극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환영사에서 “대종회는 전국 지역 종친회, 각 파종회, 15개 파종회장협의회 등 3개 죽이 끌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죽이 무너지면 대종회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사와 환영사가 끝나자 권기윤 사무국장은 26가지 경과보고 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권영택 감사가 부재중이어서 서면으로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대신했다. 곧 이어 의안심의(議案審議)에서 제1안 임원개선, 제2안 능동재사 양소(兩所) 임원추천 등 두 안건이다. 임원개선에서 회장은 안동권씨15개파 원류(源流) 순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종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일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하자는 등 열띤 토의를 벌일 결과 파종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일하겠다고 한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6대 파종회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권중근(權重根, 시중공파) 부회장 권기수(權基秀, 별장공파), 감사 권순복(權純福, 정조공파)을 각각 선임하고 사무국장은 신임회장이 차후 지명하기로 했다. 신임 임원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다. 제2안 능동재사 양소 임원추천은 2024년(甲辰) 춘향 능동재사 도유사, 재유사, 죽, 찬자 등은 각 파종회장들이 추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근 신임회

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 회장, 협의회 고문들과 협의해서 권문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타 토의에서 권갑현 안동권씨 1100년사 편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권기(權紀) 1094년으로 6년이 지나면 1100년이 되는데 큰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1000년 역사와 자료는 파종별, 문종별로 자료가 방대하게 수집되어 있으나 현대 100년 역사는 지역별, 파종별로 자료를 뮤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이나 자료 수집이 안 되고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권정택 겸교공파종회장은 백인(百忍) 권준(權峻) 장군에 관하여 소개했다. 경북 상주출신인 권 장군(1895~1959)은 광복회 조직에 참여하고 중국 신 흥무관학교 졸업 후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그는 복별 전에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후에는 국군 창설의 초석을 다지며 고위 직책을 역임하였다. 지난 11월 제18회 상주역사문화 학술대회 때 배부한 권준 장군의 책자를 권정택 회장이 가지고 와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5kg들이 백전주 쌀 1부대와 상주문화원에서 발행한 백인 권준 장군 학술대회 책자 1권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안동종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방식당’에서 불고기와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권씨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2023년 안동종친회 정기총회'가 12월 12일 오전 11시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원로원 회원,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기장 안동시장 부인,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신임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순복 정조공파회장, 권중덕 전 시중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권광택 경북도 의원, 권남희 전 안동시 의원, 수석 및 상임부회장, 지회장협의회, 총무협의회, 부녀회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맹배, 상읍례,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장 안동시장이 서울 출장 중이어서 대신 부인이 참석하여 축사를, 권용수 건국대 교수도 축사를 한 후 두 사람은 비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 이어 권재주 원로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회의 서류를 보니 경과보고에 89개 항의 활동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권철환 회장이 1년 동안 노고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지난 5월 18일 나이가 만 80세 이상인 안동원로원 회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



해까지 관광을 시켜주었는데 역대 안동종친회장이 이런 일을 한 회장은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권 의장은 “안동에는 안동권씨가 약 2만여 명 살고 있지만 종친회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내년 신년 인사회에는 많은 족친이 참석 할 것”을 당부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씨는 전국에 73개 종친회와 15개 파종회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안동시 서후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2024년 안동권씨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를 내년 3월 2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개최하며 또 제33회 안동권씨청장년전국체육대회를 내년 5월 4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권기윤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권오감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2023년도 결산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안동종친회

를 위해 도움을 많이 준 권광택(경북도 의원), 권기수(수석부회장), 권기택(수석부회장), 권남희(전 안동시 의원), 권태형(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등 6명을 단상에 모시고 1년 동안 고생 하여 보답하는 차원에서 참석자 전원이 힘찬 박수를 보냈다. 또 지난 12월 10일 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 때 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권중근씨는 “권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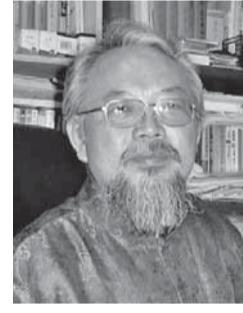
회의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안동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방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재주 원로원 의장, 권광택 도의원, 권철환 회장, 권기윤 수석부회장, 권남희 전 안동시의원 등 5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하여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광천 김, 다시마, 칼떡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42)



그(오구라小倉) 교수는 이를 현재 한국의 정치 사회적 인 현상과 연결하여 제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화 인터뷰에서도 “일본의 유교는 혁명사상이 없는데 비해 한국의 유교 전통은 윗사람이 도덕성이 없을 때 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오구라 교수는 앞서 본 논문에서 지적한대로 일본의 도쿠가와(徳川; 에도江戸) 막부 유관(儒官)이며 시강(侍講; 大學頭)이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본명은 노부카스(信勝, 호

는 리잔) 가문 세습으로 막부에 대한 어용 성과 명치유신 이후의 유교는 일왕(天皇) 절대주의의 왕권신수설에 복무하여 유교의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맹자의 혁명사상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조기 죄불집회 참가자들이 디종다양한 의지 아래 자연발생적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좌파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안토니오 네글리·마이클 하트, 윤수종 옮김, “제국Empire”, 이학사, 2001)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주장한 ‘멀티튜드(다중, 지구시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주부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등 예전의 민주화 투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며 “동일한 목적과 조직에 의한 저항운동이 아니란 점에서 죄불집회 참가자는 전

를 누리고 죽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되어 곧 관객 1천만 명을 초과할 테세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와 소고기 파동과 박근혜 정부 말기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불집회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 구상 등 여러 가지가 수구(守舊) Reaction(反動)으로 치달리는 반민주주의, 즉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 한다. 서울 청계천과 광화문, 시청광장 남대문~서울역 및 전국의 도시 곳곳에까지 수개월에 걸친 죄불집회에서 부르는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노래 소리가 절없는 아이들의 불장난이었을까?

2천 여년 전 전(前; 東北) 漢나라 경·무제 시대 동종서(董仲舒) BC.179~104, 신도 광천인)는 짚어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공부하였고 경제(景帝, 재위 BC.157~141) 때 오경박사가 되었고 무제(武帝, 재위BC.141~37) 때 ‘춘추번로春秋繁露’의 ‘천인합일론’에서 ‘음양오행·‘천인상감(天人相感)’과 ‘재이론(災異論)’ 및 이를 비판한 후漢 초기 왕충(王充, 27~약 97)의 ‘논형論衡’을 같이 읽어 보았다. 그

리고 북송 시기 개혁 신법(新法)의 바탕이 된 북송 때 왕안석의 ‘삼부족설’과 그에 대한 글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늘’은 내게 무엇인가? 그래도 “民心은 天心”이고 ‘민중의 소리(Vox Populi)는 하늘의 소리(Vox Dei)’이다.”에서 동서고금의 ‘그하늘’을 보며 내 자신(本性; 天性)을 되돌아 본다.

그래서 옛부터 정치개혁, 즉 ‘경장은 혁명과 수성보다 더 힘들다.’고 했던가? 그러나 시의적절한 즉, 시대상황에 알맞는 인사조직과 제도시스템의 개혁이 없다면, 그 조직이나 나아가 국가(공화국·왕조)도 내분과 외침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서 논의한 한·중·일의 사화당쟁의 결과는 서인·노론의 일당전제로 이어져 외척의 세도정치의 모순으로, 중국 북송대 신·구법당의 거듭된 정책변복과 (태)황태후의 정치 간섭과 농단으로 수구반동의 소수 집단 이익에 물들어 ‘정강의 변(靖康之變, 1126~1127년)’으로 금(金)나라(1115~1234년)에게 망국의 치욕을 당했다. 조슈(長州) 번과 사쓰마(薩摩)의 갈등과 합작의 명치유신이 일왕(天皇)을 ‘옥(玉)’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결국 경제공

황과 1930년대 이른바 ‘쇼와이신(昭和維新)’의 천황 절대주의와 군국주의의 만남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주(神州; 일본)’의 “가미카제(神風)”와지만 일본은 시체와 젓더미로 종(縛)되여졌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의 부재와 부정부패 서민경제 파탄 및 안보·외교정책의 파탄, 중국 공산당의 관료주의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권문제, 미국·NATO 대리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과 세계폐권 다툼 및 중화제국주의 부활, “중국몽 일대일로”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과 국가적 자본과 부의 축적은 군국주의에서 제국주의 맹령이 다시 꿈틀대며 영토분쟁으로 독도, 큐우릴 열도, 북방 4개 섬(島嶼), 다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 일본 센가쿠 제도) 분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계묘년이 저물고 새해 갑진년의 정월원단(正月元旦)입니다. 안동권씨 70여만 족친들께 “송구영신(送舊迎新)·길상여의(吉祥如意)·가화만성(家和萬成)” 하소서!

(다음호에 계속)

## 謹賀新年

顧問: 權啓東(僕射公派), 權奇德(僕射公派), 權仁塔(正朝公派), 權奇浩(僕射公派), 權宙衍(副戶長公派)

會長: 權重根(侍中公派宗會會長)

副會長: 權奇秀(別將公派宗會會長)

監事: 權純福(正朝公派宗會會長)

事務局長: 權奇胤(副戶長公派宗會副會長)

### 會長團

宗派宗會 會長 權虞瑛	副戶長公派宗會 會長 權宙衍	樞密公派宗會 會長 權五敦	僕射公派宗會 會長 權世穆
同正公派宗會 會長 權五秀	佐尹公派宗會 會長 權五信	別將公派宗會 會長 權奇秀	副正公派宗會 會長 權五璿
侍中公派宗會 會長 權重根	給事中公派宗會 會長 權旭炯	中允公派宗會 會長 權寧鐸	軍器監公派宗會 會長 權奇洪
正朝公派宗會 會長 權純福	戶長公派宗會 會長 權丙燾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正澤	

새해 元旦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會長 權重根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파종회장협의회는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